

[보도자료]

2026-09-15

라이프자산운용, 삼성전자에 우선주 매입소각 제안

현금배당보다 주주환원 효과 크고 생명·화재 지분매각 불필요...우선주 할인율 30% 육박

라이프자산운용이 삼성전자에 주주환원 재원을 우선주 매입·소각에 우선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자기주식 매입·소각은 현금배당과 달리 주당 가치를 영구적으로 증대시키고, 이 중에서도 우선주 소각은 보통주 소각과 달리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초과보유분을 시장에 내놓을 필요가 없어 주주가치를 극대화한다고 보고 있다. 또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30% 가까이 할인돼 있어 주식수 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이다.

라이프자산운용은 전일(14일) 삼성전자 이사회 및 경영진에 주주서한을 송부해 오는 10월 이사회에서 2026년 주주환원 재원을 우선주 매입·소각에 우선 배정하는 안건을 의결할 것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우선주 시가가 보통주 시가보다 낮을 때, 즉 할인율이 유지되는 때에 한해 오는 12월 말까지 우선주를 매입하고, 매입한 우선주는 즉시 소각하는 방안이다. 우선주 매입 종료 후 남은 재원은 전액 현금배당으로 전환한다.

삼성전자가 8월 발표한 주주환원 정책에 따르면 2026년 주주환원 재원은 90~110조 원이며, 이 중 30조 원 안팎을 10월 이사회를 통해 3분기에 현금배당할 계획이다. 3분기 현금배당 후 잔여 재원(중앙값 기준 약 63조 원¹)은 현금배당과 자기주식 매입·소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 1월 이사회에서 배분 방식을 최종 결정한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환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컨센서스 기준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5배마저 밑돌 정도로 지지부진하면서 주주환원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라이프자산운용은 주주환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약 63조 원의 잔여 재원을 현금배당보다 자기주식 매입·소각에 투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금배당은 이듬해 실적이 악화되면 그 규모가 축

¹ 잔여 재원 = 예상 규모 중앙값 100조 - 3분기 배당 30조 - 3분기 외 정규배당 약 7.4조(1·2분기 기지급 4.91조 + 4분기 약 2.46조) = 62.6조 원 → 63조 원으로 반올림해 기준값으로 사용(예상 규모 90~110조 적용 시 53~73조)



소매 일회성 주주환원에 그칠 수 있다. 반면 자기주식 매입·소각은 주식수 자체를 줄여 한 번의 시행으로도 주당 가치를 영구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우월한 주주환원 수단이다.

무엇보다 라이프자산운용은 이번 주주서한에서 자기주식 매입·소각 대상으로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를 지목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독특한 지배구조 탓에 보통주를 매입하는 데 제약을 받았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은 금융계열사가 같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10%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보통주를 소각할 때마다 보통주 합산 10%를 보유한 삼성생명(8.51%)과 삼성화재(1.49%)가 초과분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소각의 효과가 크게 상쇄됐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보통주 1조 원어치를 매입·소각하면 금융계열사가 초과분 1,000억 원어치를 되팔아 실질적인 매입 효과는 9,000억 원에 그친다. 하지만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제약에서 자유로우며, 이에 따라 소각해도 금융계열사가 초과분을 매도할 필요가 없다.

또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26.7%(9월 9일 종가 기준) 낮게 거래되고 있다. 보통주 1주를 소각할 재원으로 우선주 1.36주를 소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우선주 수를 줄이면 보통주 주주에게도 주주환원 효과가 돌아간다. 삼성전자는 배당 재원을 연간 총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우선주 수를 줄일수록 보통주 주주의 주당배당금이 영구적으로 높아진다.

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공동대표는 "우선주 소각은 그동안 보통주 소각을 가로막은 지배구조의 제약에서 벗어나면서도 같은 재원으로 주주가치를 더 크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높일 수 있다"며 "800만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이익을 늘리는 동시에 한국 자본시장의 주주환원 기준과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자료문의: 박주홍 인게이지먼트팀장 변호사(jhpark@investlife.com)

이민호 인게이지먼트팀 과장(minori@investlife.com)

배포시점: 즉시